

지역 매 아리



부안군, 식목일 기념행사 개최

부안군은 제74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지난 22일 수생정원이 조성돼 부안의 새로운 생태회랑이 될 부안읍 신운천에서 실시했다.

희망을 심고, 행복을 나누는 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부안군의회, 부안군산립조합, 산림분야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여해 수양홍도화, 홍매실, 석류 등 500본의 나무를 심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기념식수로 식재해 식목일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부안군은 이번 식목행사를 통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된 신운천을 조속하게 군민들의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가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새롭게 태어난 신운천에 정성을 더해 숲을 가꿔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로컬 푸드 출하농가 안전성 역량강화 교육 실시

정읍시가 지난 22일 영농철 파종기를 앞두고 로컬 푸드 직매장 출하품 관리와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1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상찬 강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정읍사무소 정성준 강사 등 농업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됐다.

강사는 로컬 푸드 직매장에 신선 농산물을 출하하는 300여 농가에게 병해충 방제요령과 농산물 안전관리, PLS(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을 안내했다.

시는 앞으로도 로컬 푸드 출하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함께 로컬 푸드 참여농가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로컬 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로컬 푸드 직매장 홍보와 관측행사, 출하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참여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동물전염병 선제적 대응

정읍시, 동물약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가자

정읍시가 신장동 전북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동물약품 산업메카로의 위상 다지기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동물약품 산업은 세계 육류수요의 증가와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 항생제 수입비중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전망되는 유망산업이다.

하지만 AI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으로 국가 경제적 손실이 심각해 동물약품 핵심 기술개발·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동물약품 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시는 동물약품 산업 육화 기반 구축을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정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정읍은 동물약품 개발과 평가, 생산 등에 특화되어 있는 정부출연

국책연구소와 연구기관과 전국 축산물 생산 점유율 1~2위의 축산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다.

시는 특화 R&D 클러스터 조성에 적합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읍시 동물약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기업체를 유치하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시는 22일 동물약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원일 교수)과 정읍 3대 국책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출입안전성연구본부)와 농축산용 미생물산

육성지원센터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동물약품 클러스터 조성 정읍시 추진 타당성 타당성조사 연구개발특구 내 국책연구소 연계전략 동물약품 기업체 유치방안 △국가예산 확보방안 등이 다뤄졌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읍의 경쟁력과 R&D 활성화, 지역연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가 신규 공모사업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기관 R&D 기반과 연계한 동물약품 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동물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관련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국내 유일의 동물약품 산업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한반도 첫수도 고창정보리밭 축제 개막 한 달 앞으로

방문객 안내 음식점 할인 시식·특산물 홍보관 운영

고창 정보리밭 축제 개막(4월 20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축제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정토진 부군수 주재로 '정보리밭 축제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공식 포스터'와 '주요행사' 등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포스터는 새벽녘 안개에 휩싸인 정보리밭의 신비로움과

산책길 속 오두막의 정겨운 풍경이 표현됐다. 16회를 맞은 올해 축제는 ▲불거리=황금손 셀가 인증, 산책로 트리어트길 ▲먹거리=보리쿠키·음료시식 ▲살거리=특산물 홍보관 운영 등에 중점을 뒀다.

또 매주 토요일에는 한반도 첫 수도 봄소풍 컨셉으로 국악공연, 버블쇼, 마술쇼, 가족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관람객들에게 고창 음식점과 주요 관광지 10%를 할인을 해주면서 축제장을 고창 전체로 확

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현재 일반음식점 32곳, 풍천장이전문점 24곳이 참여하고 상하농원, 석정휴스파 등 주요 관광지 등도 축제장 방문객 할인 행사에 동참하기로 했다.

고창군 정토진 부군수는 "새로운 프로그램 등 세심한 준비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바가지 요금과 주차난 등의 해결책 마련에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사랑 기술봉사단, "매일 첫째·셋째 주 토요일은 재능기부의 날"

정읍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체인 '정읍사랑 기술봉사단'이 지난 23일 장명동 신흥호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정읍사랑 기술봉사단을 비롯해 대한건축사협회 정읍시지회 회원들과 마을 주민 등 모두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마을 진입로 주변 100m의 담장을 새롭게 색칠했다. 또한 소외계층 10세대를 방문해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고 노후 전기시설 등도 점검·보수했다.

올해 첫 활동을 시작한 정읍사랑 기술봉사단은 오는 11월까지 소외계층 20여 세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읍사랑 기술 봉사단은 올해로 발족 14년째를 맞는다. 뜻있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면서 현재는 모두 49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기술을 아낌없이 발휘해 매일 첫째와 셋째 주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발족 이후 현재까지 소외계층 542세대를 대상으로 주택 보수와 전기 안전점검, 노후전기시설 교체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들이 매일 납부하는 회비로 충당해 운영하고 있어, 참 봉사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 정읍시지회

에서도 매년 후원금과 함께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만들기 힘을 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휴일을 이용해 매일 두 차례씩 봉사에 나서고 있는 봉사대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작은 재능이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단으로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이 전북서부보훈지청과 함께 지난 21일 부안읍과 변산면에 소재한 독립유공자 고제신 의사의 후손(고광복), 송영식 의사의 후손(송병숙)의 자택을 방문해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가졌다.

보훈가족들의 명예 드높인다

부안군,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본격 추진

부안군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립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황선우)과 함께 지난 21일 부안읍과 변산면에 소재한 독립유공자 고제신 의사의 후손(고광복), 송영식 의사의 후손(송병숙)의 자택을 방문해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마음을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 통일된 국가유공자 명패 사업을 지시한 후 올해부터 각 지자체별로 실시되고 있으며 부안군의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대상가구로 건국훈장(애국장)수여자인 두 의사의 후손대를 방문해 이뤄졌다.

고제신 의사는 1910~20년대에 전북 일대에서 임시정부 지원을 목적으로 군자금 모집활동을 할

발히 전개했으며 활동 중 1924년 체포돼 징역 8년의 옥고를 치르고 공적을 인정받아 1962년 건국훈장이 추서됐다. 송영식 의사는 전북 등지에서 치열한 항일 투쟁을 전개하다가 체포돼 징역 7년의 옥고를 치르고 공적을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이 추서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헌신해 온 독립유공자 후손가정에 국민의 성심으로 제작된 명패를 직접 달아드릴 수 있어 그 의미가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보훈가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안군은 이번 독립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시작으로 부안군에 거주하는 민주유공자 유족 3명에게는 이날 중으로, 그 외 6.25 참전 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1073명에 대해서는 오는 6월 보훈의 달 전후로 명패를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 출범식... "정책개발에 최선을"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락현)가 지난 23일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에서 2019년 3기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한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위촉장 수여와 취임사, 임원 소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

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새롭게 첫발을 내딛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정책 허브이자 대변인으로 신뢰받는 연합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wine and a smaller image of a gift set.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 ad also list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and quantities.